

## 보 도 설 명 자 료

('20. 8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암바토비 광산 평가를 통해  
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하였고 해외자산은 헐값매각  
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을 정하지 않았음

(한국경제 8.26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지난 '18.3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암바토비 광산을 포함하여 광물  
공사 해외자산 평가 후, 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하였으며 헐값매각  
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음
- ◇ 그간 광물공사 해외자산은 국내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 
앞으로도 국내기업 우선 매각 기조는 유지할 계획임
- ◇ 8월26일 한국경제 <배터리 전쟁중에--'알짜 니켈광산' 팔겠다는 정부,  
전기차 年 3만대 만들 수 있는 '니켈광산' 해외로 넘어갈판> 보도에  
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### 1. 8.26일자 한국경제 기사 내용

- 정부와 여당은 '알짜 니켈광산'의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여당인  
더불어민주당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 
법안을 추진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처함
-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알짜 니켈광산이  
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, 정부의 정책은 세계  
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상황

### 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① 지난 '18.3월,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암바토비 광산\*을 포함하여  
광물공사의 해외프로젝트를 평가하였으며, 광물공사의 재무상태  
및 향후전망 고려시, 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

\* '15년도를 정점으로 생산실적이 70~80%에 머물고 있는 상황

- ② 그간 암바토비 광산 등 광물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국내기업에게  
매각하려고 노력\*해왔으며 향후 매각 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  
우선 매각 기조는 지속 유지할 계획임

\* 해외매각자산 투자설명회 ('18.11.22, '18.11.29, '19.2.22) : 30개 업체 대상으로  
투자설명회 실시 및 개별면담 추진

- ③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포함한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공운위 결정  
( '18.3)에 따라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을 정하지 않고 매각  
할 계획임

\* 이와는 별개로 공운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국회에서  
논의중이며 동 제정안은 공운위 결정내용과 대부분 일치함

< 해외자산 매각 관련 공운위 보고내용, '18.3 >

- 매각원칙 :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,  
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음 (자산가치 하락 방지)
-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 
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

※ 문의

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 정근용 팀장 / 정석 사무관(044-203-5256)